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1, Vol. 10, 113-134

고령화사회와 노인학대

박진희·윤가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고령화사회로 변모하면서 발생하는 특성 중의 하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의존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다. 이에 본고는 고령화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현상을 노인학대 발생빈도의 문제점, 노인학대의 정의와 범주, 노인학대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시설기관에서의 노인학대, 노인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등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 및 예방책 등을 정리했다. 노인의 기능적 수준과 학대유형에 따라서 노인학대 해결방안이 다르지만,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교육이나 노화과정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 재정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Key words: 고령화사회, 노인학대, 방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가족학대는 아동학대, 부녀자 또는 아내학대, 노인학대 등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학대(elder abuse)의 분야는 다른 분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ghyoun@chonnam.chonnam.ac.kr입니다.

야에 비하여 우리 문화권은 물론 거의 반세기전에 고령화사회로 변모한 서구에서도 대중이나 전문가들의 관심을 늦게 받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주로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에 관심이 쏠렸으며, 1970년대부터는 특히 남성이 배우자나 자녀 등을 상대로 하는 가정폭력,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인척관계가 아닌 남성이 남녀 아동들을 상대로 한 성 학대(sexual abuse)가 우선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반면, 노인학대는 노인들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겨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Kemp, 1997; Vinton, 1999).

아동이나 성인여성들을 상대로 한 학대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에 관한 관심이 학문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로 높지 못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마도 노년기가 발달단계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한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간과했는지도 모른다. 즉 노년기에 학대를 받고있는 노인들이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해 버린다면, 노인학대의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나 태도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인을 경시하는 사회 문화적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Kemp, 1997).

서구에서는 노인의 존재가치를 경시하는 등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에이지즘(ageism)”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일종으로 특히 산업화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부각되었다. 산업화사회 말기 및 정보화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정신능력을 젊은 세대들의 것과 너무 쉽게 비교하면서 노인들이 소유한 자원(resources)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노인들은 열등하거나 쓸모가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 반면에 아동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이라고 인식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Childs, Hayslip, Radika, & Reinberg, 2000; Garner, 1999; Hudson & Carlson, 1998).

그렇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술을 비롯한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20세기 중반 이후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 문화권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나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수의 증가와 정비례하고 있는데, 질환으로 고생하는 대다수 노인들은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의존적인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학대이다 (Couper, 1989).

우리 문화권에서는 가정폭력방지관련 특별법이 1997년 제정되면서 아내학대나 아동학대 등 가족학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도 생기고 있다 (이성희·한은주, 1998; 이영숙, 1997). 또한 평등주의와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보다도 부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모하면서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전통적인 부양의무가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전보다 높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권에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특히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시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형태의 폭력 문제처럼 민감하기 받아들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이영숙, 1997; 전길양·송현애, 1997).

누구나 평등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권리 측면에서 볼 때 갓 태어난 아이나 기대여명이 1년도 되지 못하는 노인이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젊은 시절동안 가정이나 사회에 헌신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아이보다도 노인의 존재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인학대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중요성이나 심각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1세기 고령화사회에서도 존엄한 인격체로서 노인들이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들은 노인학대의 빈도에 관련된 문제점, 노인학대의 다양성, 노인학대로 인한 영향, 노인학대의 위기요소, 그리고 노인학대 해결방

안 및 예방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학대 발생빈도 보고의 문제점

노인학대의 발생빈도는 연구자마다 약간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데, 노인인구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학대를 경험했다는 내용으로부터 전체 노인의 $\frac{1}{3}$ 이상이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고 있는 약 2,000명의 노인들 중에서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 재정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1.4%, 그리고 보호자나 부양자가 보호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0.2% 등 노인학대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는 편이었다 (Comijs, Pot, Smit, Bouter, & Jonker, 1998).

그 반면 미국 일리노이지역에 거주하는 3,700명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인들의 49%가 재정적인 착취, 36%가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33%가 부양자의 보호의무 태만, 2%가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지각했으며, 또 사회복지사 등에게 상황을 판단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이 더 높아져 재정적 착취가 66%, 정서적 학대가 77%, 보호의무 태만이 66%, 성적 학대가 21%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Neale, Hwalek, Goodrich, & Quinn, 1996). 물론 우리 문화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비율을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노인을 상대로 학대실태를 조사한 경우보다도 노인의 자녀나 가족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더 흔하게 이루어졌으며, 또 전자의 경우도 표본의 수가 너무 작아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모두 실제 발생하는 경우보다 낮은 수치로 보고되고 있는데, 학대의 범주를 크게 설정할수록 신고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이라는 표현에 가까워진다.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 스스로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신고된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노인학대는 일반 대중이 학대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고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다 (Mixson, 2000). 이렇듯

이 노인학대의 빈도는 실제 발생한 건수보다 훨씬 낮게 보고되고 있으며 또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료수집과정에 기인한 문제점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인학대 빈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노인과 면접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데, 면접을 담당하는 조사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학대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면접에 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던 조사원을 투입시킬 경우에도 노인과 면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사원의 실수로 미리 준비된 질문들의 약 4.2%를 빠뜨리게 되며, 또 노인과 의사교환을 하는 도중에 얻은 대답의 일부는 노인학대의 빈도를 파악하는데 전혀 유용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노인학대의 비율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보고될 가능성이 큰 편이다 (Comijs, Dijkstra, Bouter, & Smit, 2000).

둘째, 조사대상자나 일반인들이 학대에 대한 정의나 범주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인문제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학대의 관점과 일반인들의 관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능력을 단순히 평가 절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경미한 상태의 학대라고 보는 반면, 전문가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라고까지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노인들을 어린이처럼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도 전문가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애매한 형태의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학대의 범주를 더 넓게 지각하고 있었다 (Hudson & Carlson, 1998).

또 노인학대를 이해하는 전문성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 노인학대를 다르게 지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성인기 중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성인기 초기에 해당된 사람들보다 경미한 수준의 행위까지도 노인학대라고 해석하는 등 학대의 범주를 넓게 설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령차이는 성인기 중기의 개인들이 노인의 부양자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노화과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더 풍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Childs 등, 2000).

셋째, 문화권마다 노인학대의 범주나 해석, 당위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 문화권에서 노인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들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감이 강했던 코스타리카 지역에서는 노인에 대한 과잉보호(overprotection)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코스타리카 지역에서는 노인문제 전문가나 서비스제공자가 노인학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웠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이 노인의 자율성을 빼앗는 노인학대현상은 가족구성원들에게는 과잉보호라는 차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 노인 스스로도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Gilliland & Picado, 2000).

한국노인들도 코스타리카 노인들처럼 학대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고, 또 학대상황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문화권의 노인들과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노인들과 백인 및 흑인노인들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노인들은 미국노인들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지각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또 노인들이 학대를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흑인이나 백인노인들은 거의 50%정도인 반면 한국노인들은 36%에 불과했다. 한국노인들은 도움을 요청한 비율보다도 ‘꼭 참아버렸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Moon & Williams, 1993).

이러한 차이는 한국노인들이 자신의 평안보다는 가족간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노인들은 자신이 자녀 등의 가족으로부터 학대받고 있거나 그들과 소원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수치(family shame)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의 노출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학대 가해자로 고발하면서 따를 수 있는 죄책감이나 보복 또는 고발로 인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어 학대가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윤가현 · 송대현, 1989; 이성희 · 한은주, 1998; Moon & Williams, 1993).

역시 학대유형에 따른 심각성의 평가도 문화간의 차이를 보였다. 백인 미국 대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의 학대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은 노인을 구타하거나 노인의 금전을 갈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취하는 행위를 미국 대학생들보다 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한국 대학생들은 심리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심각한 학대에 해당된다고 반응하였다 (Malley-Morrison, You, & Mills, 2000).

노인학대의 정의와 범주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노인학대의 정의 및 범주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구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가족이나 친지와 같이 노인과 개인적인 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심리적 고통 또는 물질적 손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Salend, Kane, Satz, & Pynoos, 1984).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4~5개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Comijs 등(1998)은 (1) 습관적으로 노인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협박을 가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mistreatment) 또는 만성적인 언어적 공격행위(chronic verbal aggression), (2) 노인에게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신체적 공격행위(physical aggression), (3) 노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오용하거나 훔치는 재정적 또는 물질적 학대(financial or material mistreatment), 그리고 (4)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도움을 노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neglect)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후속 연구에서 첫 번째의 유형을 단순히 만성적인 언어적 공격행위로 단순화시키기도 했다 (Comijs, Penninx, Knipscheer, & van Tilburg, 1999b).

노인학대의 대한 정의나 범주에서 학대(abuse), 학대(mistreatment), 그리고 방임(neglect)이라는 용어가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Hudson과 Carlson(1998)은 학대와 방임은 모두 학대에 속하며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노인학대(elder mistreatment)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노인이 신체적

으로 해를 당하거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거나, 또는 물질적인 손실을 입어 결국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인권의 침해와 관계된 것인 반면, 노인학대는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들이 노인에게 고통을 주어 결국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노인학대는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3) 사회적 학대(social abuse), 그리고 (4)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로 구분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학대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가치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차별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Hudson & Carlson, 1998).

한편 Malley-Morrison 등(2000)은 학대와 방임을 홀대에 포함시킨 Hudson과 Carlson(1998)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노인학대를 (1) 노인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욕을 하는 행위의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 (2) 노인을 무시하여 노인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행위의 심리적 방임(psychological neglect), (3) 노인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성을 보이는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4)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신체적 방임(physical neglect), 그리고 (5) 노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물질적 학대(material abuse) 등으로 구분했다. 홀대를 당한 노인들 입장에서는 신체적 및 심리적 학대나 방임 모두 심각한 문제에 해당되지만, 물질이나 재정적인 착취는 노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빼앗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Choi, Kulick, & Mayer, 1999).

또 Young(2000)은 Comijs 등(1998)처럼 노인학대 범주를 네 가지로 유형으로 나눈 다음에 성적 학대(sexual abuse)와 자기방임(self-neglect)을 추가하여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성적 학대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보고하는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방임은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건강이나 위생의 측면에서 불량한 상태를 보여준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난방이나 냉방, 전기 시설이 없는 위험한 주거환경, 동물이나 해충으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환경, 부적절한 옷차림, 안경이나 보청기를 제때에 마련하지 않는 것,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것,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탈수증(dehydration), 영양실조(malnutrition) 등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치매환자들은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 문화권에서 접근한 예를 들면, 전길양·송현애(1997)는 노인 학대를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심리적 학대, 심리적 방임, 재정적 학대, 재정적 방임, 그리고 유기(abandonment) 등 모두 일곱 가지로 분류했는가 하면, 이성희·한은주(1998)는 신체적 방임, 신체적 학대 및 유기, 심리적 학대 및 방임,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등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우리 문화권에서의 노인학대에 관점은 서구의 접근방식과 최소한 한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유기에 있다. 유기란 노인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노인을 버리는 것으로 (전길양·송현애, 1997), 이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한 유형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정의나 범주의 구분에 대한 설명은 학문적인 연구차원에서 접근한 것들에 한정시켰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보다 더 다양한 노인학대의 범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정부나 행정기관의 차원에서 다루는 노인학대는 매우 폭이 넓은 상태로 정리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의 노인학대구분의 예를 <표 1>에 소개하였다 (Neals, Hwalek, Goodrich, & Quinn, 1996).

노인학대의 영향

아동학대가 아동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에 비하여 노인학대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어떠한 유형의 학대이든지 노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신체적 학대도 신체적 손상 이외에 노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노인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여 상처가 생기거나 부상을 입혔을 경우 상처가 아물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긴장 등의 적응은 노인의 남은 생애동안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보호자들이 외출하면서 노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감금시키는 행위는 노인에게 사회적 접촉과 자극을 차단시키므로 심리적인 충격

박진희 · 윤가현

<표 1>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의 지표

학대유형	정의	학대의 지표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상해의 유무 ☞ 상해의 유형 ☞ 노인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 부적절한 화학물질 사용 ☞ 의학적 증거
성적 학대 (sexual abuse)	노인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 또는 노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	☞ 의학적 증거 ☞ 희생자의 행동 ☞ 노인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언어적으로 위협·협박 등을 가하여 노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는 노인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억지로 시키는 것	☞ 가해자의 행동거지
감금 (confinement)	의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노인을 고립 또는 구금하는 것	☞ 부적절한 신체적 속박
방임 (neglect)	보호자가 의도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노인에게 필수적인 일상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 태만	☞ 부적절한 위생상태 ☞ 피부의 정상여부 ☞ 영양상태 ☞ 희생자의 신체적 보호/관리 ☞ 희생자의 행동 ☞ 사회적 고립 ☞ 희생자의 의료 보호/관리 ☞ 집안의 상태 ☞ 가해자의 행동거지
착취 (exploitation)	노인의 자원을 타인이 노인에게 손해가 생기도록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나 노인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행위	☞ 노인의 부적절한 수표사용행위 ☞ 노인의 사회보장 금전거래행위 ☞ 가해자의 부적절한 의사결정 ☞ 절도 ☞ 가해자의 은행거래행위결정 ☞ 가해자의 현금사용 통제행위 ☞ 가해자의 파괴행위

출처: 상기의 내용은 Neale 등(1996)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것임.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이나 후유증이 훨씬 클 수도 있다 (Kaplan & Sadock, 1989; Kemp, 1997).

그렇지만 신체적인 손상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나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도 한다. 어떠한 유형의 학대이든지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노여움이나 슬픔, 좌절을 보이고 불안이나 우울증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과 함께 수면장애나 섭식 장애, 에너지 손상으로 인한 무기력, 정신집중 저하에다가 일상생활이나 주변에 대한 관심의 감소 등을 보인다.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간혹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같이 내거나 가해자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또 학대가 노인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행해질수록 노인은 보다 더 심한 감정적 동요와 실망 및 배신감, 적개심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학대의 가해자가 자신의 성인자녀일 경우 노인들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자녀를 자신이 양육시켰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인식하는 것이다 (Comijs 등, 1999b; Kaplan & Sadock, 1989; Kemp, 1997; Comijs 등, 1998).

시설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의존성을 보인 노인들이 늘어가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시설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과 시설기관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시설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노인학대와 구별된다. 시설기관에서의 노인학대는 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시설기관 또는 무허가 시설에 위탁된 노인들을 상대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비용을 받으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원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Kemp, 1997; Lowenstein, 1999).

예를 들면, 스웨덴 지역의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 5백 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직원의 약 11%가 시설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답했으며 또 직원의 2%는 실제로 자신

이 학대를 가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Saveman, Astrom, Bucht, & Norberg, 1999).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비해 시설기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도 많지 않고, 노인학대라고 신고된 비율도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에 의하여 시설기관에서는 노인학대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 때문이다 (Griffin & Aitken, 1999).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사회적 및 경제적인 지위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는데, 대부분의 시설기관 종사자도 여성이며 또 입소한 노인들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이 노인학대의 발생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설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여성이 여성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시설기관에서의 노인학대를 조사한다거나 보고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Griffin & Aitken, 1999).

둘째, 시설기관에서의 노인학대는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힌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외부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관계된다. 노인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무시해버리거나 노인들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Chambers, 1999). 그렇지만 시설기관에서 발생하면서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학대의 형태는 대다수가 식사제공이나 약물의 사용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서는 일부 장기보호 시설기관에서 노인의 건강보호에 관한 비용이 늘어나자 식비를 감소시켜 노인들에게 단백질과 칼로리를 제대로 섭취시키지 못해 영양결핍의 상태로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발하기도 했는데, 연구자들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존적인 노인이나 어른에게 적절한 영양분 제공의무를 무시하거나, 부적절한 식단을 제공하는 행위들도 학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Aziz & Campbell-Taylor, 1999).

시설기관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식단과 관련된 학대행위도 비도덕적이지만,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약물투여도 마찬가지다. 장기보호 시설기관에서 노인들의 문제행동을 쉽게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위 약물학대(drug abuse)는 비도덕적인 의사나 간호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사, 및 직원들에 의한 수면제나 진정제, 항우울제 등의 향정신성 약물의 오용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시설기관의 전문가들이 훈련과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서 투약이 잘못 이루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Chambers, 1999; O'Connor & O'Connor, 1999).

노인학대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

노인학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관련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해자가 현재 부양하고 있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각은 자신의 경제적 상태나 직업 유무를 비롯하여 이웃이나 지역사회 환경(예, 인구과잉이나 범죄발생빈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Kemp, 1997). 즉 부양자가 경제적으로 운택한 생활을 하지 못한 형편이라면 부모부양 자체가 경제적인 손실에 직결되므로 부모가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부양자도 우울증이나 걱정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거나 신체건강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역시 다른 가족구성원과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양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할수록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성희·한은주, 1998; Wolf & Pillemer, 2000).

또 가해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양상황에 지쳐있는 것 이외에도 성미가 급한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Saveman 등, 1999).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이거나 문제해결을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노인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할 가능성도 높은데, 그들은 평소에도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정신병적인 기질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다수가 가족이나 친지, 사회단체 등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접촉이 없이 고립되어 있고, 노화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노인의 요구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길양, 송현애, 1997; Reay & Browne, 2001; Young, 2000).

학대받는 노인의 특성을 보면, 75세 이상 노인, 여성이거나, 신체

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보호를 받고 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성희·한은주, 1998; Kemp, 1997; Salend 등, 1984; Saveman 등, 1999). 특히 재정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는 인지적 기능이 손상된 70세 후반의 노인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노인의 재산이나 금전을 관리하면서 오용이나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Choi 등, 1999).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학대의 가해자의 47%가 성인자녀이고, 배우자가 19%, 손자가 9%, 그리고 거의 4정도가 친구, 형제나 자매, 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친지들이다. 또 노인학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 (Young, 2000; Choi 등, 1999).

노인학대의 해결 방안 및 예방책

지금까지 가정이나 시설기관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노인문제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산업화사회로 변모한 이후부터 노인의 능력이나 가치 등을 무시하는 노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서구는 물론 경로의식을 근간으로 살아왔던 우리 문화권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전에 노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타파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노인에 대한 차별의식의 타파는 노인을 가치와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를 계기로 노인이 인간으로서 권위와 위엄을 되찾게 될 수 있을 것이다 (Harbison, 1999).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세 가지 측면의 요소를 점검하고자 한다. 하나는 실제로 노인들이 어떤 유형의 학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학대받은 노인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나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 자신이나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가족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마지막은 노인 스스로를 비롯하여 일반인들이 노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것이다.

우선 노인에게 가해지는 학대의 정도 및 학대를 받은 노인의 대처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특히 우리 나라의 노인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학대를 받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학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술했듯이 학대를 가한 대상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자신이 양육한 자녀임을 노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윤가현·송대현, 1989; 이성희·한은주, 1998; 정공진, 2000). 그러한 이유로 학대를 실제로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면, 기존의 양적인 측정방법에서 얻어내지 못한 문화적인 특성이 추출되면서 한국노인에게 고유한 해결방안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이 학대에 대처하는 방식은 노인의 기능적 수준과 학대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비교적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이에 잘 대처하는 편이지만, 기능수준이 저하된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 대처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로 인하여 생활장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학대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 희생자로 전락한 이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거나 신경정신과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노인이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일 경우 아예 자신의 학대경험을 타인에게 설명할 처지가 되지 못하여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한다 (Kemp, 1997).

한편 노인들은 어떠한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노인이 그 상황을 단순히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학대를 받는 노인이 화가 나거나 좌절을 느꼈을 때 가해자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응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난다. 또 노인들은 재정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아차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러한 경험 때문에 노인들은 자신감이나 자아감을 더욱 상실하게 된다 (Comijs, Jonker, van Tilburg, & Smit, 1999a).

비록 학대유형별로 노인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노인학대 희생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더 완화시켜 주고 또 그들에게 자신감과 자아감을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이 그 한 예가 된다 (Comijs 등, 1999a). 아울러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기능이 손상된 노인들이 경험하는 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복지 측면에서 노인과 부양자에게 사회적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재정적 자원의 마련이나 법적인 근거마련 등이 필요하다 (Choi 등, 1999).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의 거주환경은 적절한 서비스나 사회적 지지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는 노인이 독립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리, 청소, 식사, 시장보기 등을 제공해주는 가정 보조 서비스이다 (Kemp, 1997). 실제 심리적, 신체적, 및 재정적 학대의 희생자에 비하여 방임이라는 노인학대 희생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희생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의존하는 정도를 감소시켜주고, 희생자의 환경을 바꾸어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이를 거부하거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거부하는 희생자들은 학대로 인한 문제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학대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olf & Pillemer, 2000; Comijs 등, 1999a).

둘째, 노인을 부양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부양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양자를 대신해서 몇 시간이라도 부양자의 역할을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respite care, housework services 등)나 부양하고 있는 노인을 주간에 맡길 수 있는 시설기관(adult day care) 등이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 않는 상태로 늘어나야 한다 (Kemp, 1997; Young, 2000).

셋째, 노인학대 피해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들도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법안 자체

고령화 사회와 노인학대

가 노인학대 피해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와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안에 노인학대 피해자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와 장기보호 옴부즈맨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노인이 자신을 위해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성인보호서비스 직원은 특정 노인 문제를 감독하는 대리인이나 후견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기도 한다 (Kemp, 1997).

위에서 다루었던 사회제도적 측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노인들 스스로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및 보호업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노화과정으로 인한 변화와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학대 등 전반적인 노인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노인이 학대를 받았을 때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시켜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여기에서 비공식적인 관계자란 구체적으로 가족구성원, 친지, 친구, 이웃사람, 성직자, 동료 등을 말하며, 공식적인 관계자란 사회복지사, 의료인, 변호사, 경찰 등을 포함한다 (Young, 2000; Moon & Williams, 1993).

둘째, 가족구성원이나 노인보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화로 인한 신체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실제로 노인 특성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적도 없거나 역할 모델을 통해 부모부양을 배울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가족구성원은 노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노인부양을 할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성희·한은주, 1998). 특히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혹은 부양자들에게는 그러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정방문을 하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치매환자의 행동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제공해준다면 노인과 가족간의 상호작용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Young, 2000). 또 시설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약물이나 음식물 섭취가 노인의 감각기관이나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숙지한 자들이야 한다 (Aziz & Campbell-Taylor, 1999).

셋째,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인학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각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의료나 법률, 상담, 사회복지 분야 등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종교 지도자 등 사회서비스 제공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자료를 제공·홍보하여야 한다 (Kemp, 1997).

이상에서 언급한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예방책은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의 전환과 재정적인 지원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선 교육을 통해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책적인 실천을 위한 투자가 따라야 한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나 법적인 제도의 마련, 상담자의 양성과 교육, 노인을 위한 환경개선이나 부양자들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 모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의 사고의 전환과 예산마련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중매체에서 사고전환을 위한 노력을 함께 했을 때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은 보다 쉬워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윤가현·송대현 (1989). 노년기의 고독감: II. 자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독감의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 106-113.
- 이성희·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18 (3), 123-141.
- 이영숙 (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 359-372.
- 전길양·송현애 (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 (3), 83-94.

- 정공진 (2000). *노인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ziz, S., & Campbell-Taylor, I. (1999). Neglect and abuse associated with undernutrition in long-term care in North America: Cause and solution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91-117.
- Chambers, R. (1999). Potential for the abuse of medication for the elderly in residential and nursing homes in the UK.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79-89.
- Childs, H., Hayslip, B., Jr, Radika, L., & Reinberg, J. (2000). Young and middle-aged adults' perceptions of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40, 75-85.
- Choi, N., Kulick, D., & Mayer, J. (1999). Financial exploitation of elders: Analysis of risk factors based on county adult protective services data.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3/4), 39-62.
- Comijs, H., Dijkstra, W., Bouter, L., & Smit, J. (2000). The quality of data collection by an interview on the prevalence of elder mistreatment.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2, 57-72.
- Comijs, H., Jonker, C., van Tilburg, W., & Smit, J. (1999). Hostility and coping capacity as risk factors of elder mistreatmen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4, 48-52. (a)
- Comijs, H., Penninx, B., Knipscheer, K., & van Tilburg, W. (1999). Psychological distress in victims of elder mistreatment: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4B, 240-245. (b)
- Comijs, H., Pot, A., Smit, J., Bouter, L., & Jonker, C. (1998). Elder abuse in the community: Prevalence and consequen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46, 885-888.
- Couper, D. (1989). *Aging and our families*.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Garner, J. (1999). Feminism and feminist gerontology. *Journal of Women & Aging*, 11 (2/3), 3-12.
- Gilliland, N., & Picado, E. (2000). Elder abuse in Costa Rica.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2, 73-87.
- Griffin, G., & Aitken, L. (1999). Visibility blues: Gender issues in elder abuse in institutional setting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29-42.
- Harbison, J. (1999). Models of intervention for "elder abuse and neglect": A Canadian perspective on ageism,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3/4), 1-17.
- Hudson, M., & Carlson, J. (1998). Elder abuse: Expert and public perspectives on its meaning.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9, 77-97.
- Kaplan, H., & Sadock, B. (Eds.) (1989).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V*.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Kemp, A. (1997). *Abuse in family*. Singapore: Thomson Learning.
- Lowenstein, A. (1999). Elder abuse in residential settings in Israel—myth or reality?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1/2), 133-151.
- Malley-Morrison, K., You, H., & Mills, R. (2000). Young adult attachment styles and perceptions of elder abus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5, 163-184.
- Mixson, P. (2000). Counterparts across time: Comparing the national elder abuse incidence study and the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Elder abuse and Neglect*, 12, 19-27.
- Moon, A., & Williams, O.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

- logist*, 33, 386-395.
- Neale, A., Hwalek, M., Goodrich, C., & Quinn, K. (1996). The Illinois elder abuse system: Program description and administrative findings. *The Gerontologist*, 36, 502-511.
- O'Connor, C., & O'Connor, B. (1999). Reducing consumption of psychotropic medication in nursing homes: Contextual obstacles and solutions. *Clinical Gerontologist*, 21, 21-35.
- Reay, A., & Browne, K. (2001). Risk factors characteristics in carers who physically abuse or neglect their elderly dependants. *Aging & Mental Health*, 5, 56-62.
- Salend, E., Kane, R., Satz, M., & Pynoos, J. (1984). Elder abuse reporting: Limitations of statutes. *The Gerontologist*, 24, 61-69.
- Saveman, B., Astrom, S., Bucht, G., & Norberg, A. (1999). Elder abuse in residential settings in Swed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0, 43-60.
- Vinton, L. (1999). Working with abused older wome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Women & Aging*, 11 (2/3), 85-100.
- Wolf, R., & Pillemer, K. (2000). Elder abuse and case outcom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 203-220.
- Young, M. (2000). Recognizing the signs of elder abuse. *Patient Care*, 34, 56-71.

Elder Abuse in the Aging Society

Jin Hee Park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500-757

One of the major problems that most of the modern aging societies should deal with is elder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prevalence, definition, and types of the elder abuse, consequences that victims of the elder abuse experience, elder abuse occurr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of the elder abuse. A variety of intervention and preventive strategies for the elder abuse were also described. Great emphasis on educational approaches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approaches was placed in order to dispel age discrimination.

(논문접수일: 2001년 10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01년 11월 9일)

(논문게재승인일: 2001년 11월 13일)